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2. 2. 14(화) 조간		
배포일시	2012. 2. 13(월) 10:00	담당부서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
담당과장	조원경 (2150-7610)	담당자	진승우 사무관 (2150-7614)

제목: 韓·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

☐ 한-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제적 성과와 향후 협력 방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.

○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 韓·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

기획재정부 대변인

대외경제연구

韓·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

2012. 2

기 획 재 정 부
대 외 경 제 국

I. 추진 배경

□ 베트남은 최근 **빠른 경제성장, 지정학적 요충지**(중국과 인도의 관문) 등으로 주목받으며 차세대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국가로 자리매김

○ 최근 **6%이상의 높은 성장세**에 힘입어 주요 언론이 세계 성장을 견인할 신흥지역으로 지정한 **MAVINS***(비즈니스 인사이드), **VIP****(닛케이 비즈니스) 등에 **베트남이 모두 포함**

* 멕시코, 호주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, 남아프리카공화국

**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필리핀

- 메콩경제권(GMS) 개발 사업 등으로 **베트남의 인프라 문제가 개선될 경우**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커질 전망

○ 인구 30억 명의 거대시장*인 **아세안(6억)과 중국(13억), 인도(12억)를 연결하는 경제 허브**로서 중요성이 크게 부각

- 최근 TPP, ASEAN+3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**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베트남이 모두 포함**

□ 금년 韓-베트남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는 **베트남과의 경제협력 지평을 더 확대할 필요**

○ '11.12월 「韓-동남아시아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」(제113차 대경장 상정)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틀을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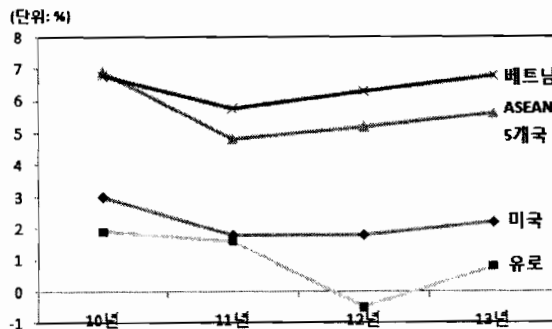
○ 다만 향후 베트남과의 협력 진전도가 아-태 시장을 선점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인바 **베트남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경협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**

II. 한-베트남 경제의 중요성

1. 거대 소비시장

- 평균 5~8%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시장으로서 베트남의 중요성이 부각
- '12년 이후에도 빠른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'09년 전체인구의 79.8%를 차지했던 저소득층은 '20년 27.7%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
- '10년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베트남 총 인구 중 소비 성향이 큰 25~35세 여성 인구(15.6%) 및 15세 미만의 유아 아동(25.1%)의 비율이 높아 소비시장이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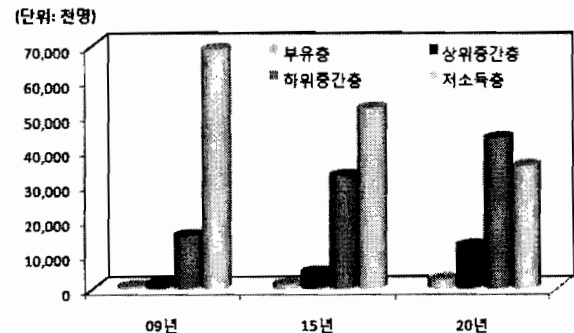
< 경제 성장률 추이 >



자료: IMF WEO ('12.1월)

* 단 베트남은 '11.9월 자료

< 베트남 인구구조 변화 전망 >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- 중산층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및 핸드폰, 자동차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'15년까지 음료 및 식품류의 매출이 267억 달러로 증가할 예정이며 핸드폰 판매도 3,100만대에 달할 예상(한국무역협회)

□ 소비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며 **베트남은 우리의 8위 수출국으로 급부상**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수출액은 8배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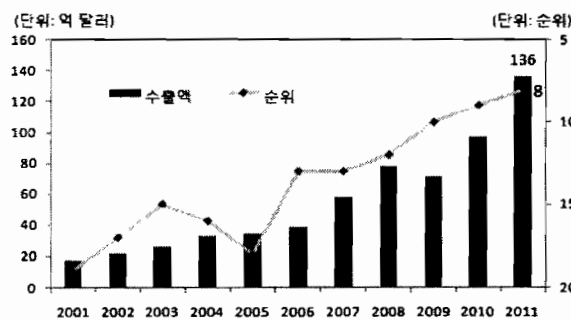
○ 對베트남 수출액이 '01년 17억 달러에서 '11년 13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매김

○ 對아세안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9%로 싱가포르에 두 번째로 큰 규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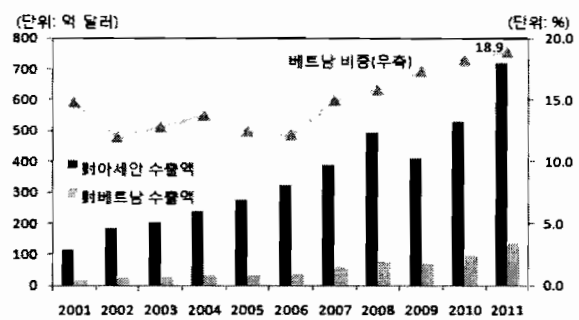
- 무역수지도 증가세*를 유지하며 '11년 84.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ASEAN 전체 무역수지의 45% 수준

* 對베트남 무역수지 추이(억달러): ('09) 47.8 → ('10) 63.2 → ('11) 84.7

< 對베트남 수출 동향 및 순위 변화 > < 對 아세안 수출에서 베트남의 비중 >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□ 신흥국에 대한 수출 규모면에서 **베트남이 중국(1,342억 달러), 인니(135억 달러)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로 부상**

○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섬유, 철강판, 합성수지 등에서 전체 대비 對베트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상승

< 주요 품목별 전체 수출 중 對베트남 수출 비중 변화 >

연도	섬유류	철강판	합성수지	무선통신기기
2005년	5.8	1.0	2.0	0.6
2011년	12.4	6.2	4.0	5

자료: 한국무역협회

2. 개선되는 투자환경

□ 베트남의 기업환경은 상대적으로 아직 열악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정부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개선 중

○ '비즈니스 수월성 조사 2011(세계은행)'에 따르면 베트남의 비즈니스 환경은 183개국 중 78위로 중위권이지만 중국, 인니, 인도 등에 비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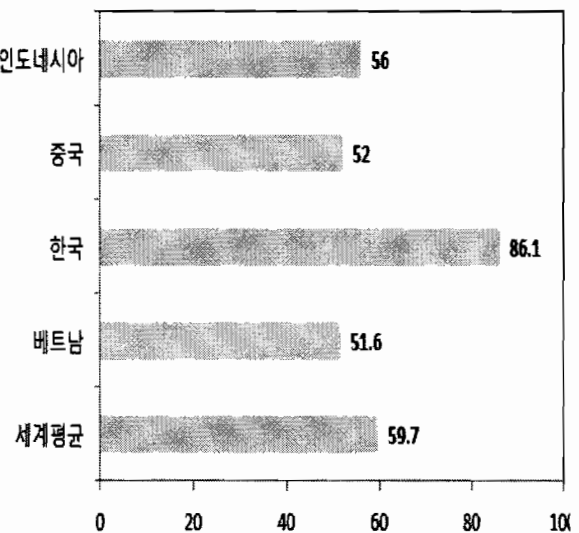
- 경제 자유도 점수도 51.6으로 183개국 중 139위 수준

< 주요국 비즈니스 수월성 지수 순위 >

	베트남	인니	말레이시아	중국	한국
종합	78	121	21	19	79
창업	100	155	113	151	60
건축 인허가	62	60	108	181	22
채권 회수	31	154	59	15	5
대출	15	116	1	65	15
교역	63	47	37	50	8

자료: 세계은행

< 주요국 경제자유도 지수 >



자료: 해리티지 재단

○ 베트남은 WTO 가입과 미국과의 정상무역관계(PNTR) 체결 등을 준비하면서 투자환경을 개선한데 이어 통합투자법, 기업법, 토지법 등을 제 · 개정

○ 베트남에 투자하는 주요국들은 일본, 대만 등으로부터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여 미국, EU 등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생산기지로 활용

(韓·베트남 수교 20주년 성과 및 향후 협력방향, 대외경제총괄과, '12.2.2)

□ **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과 성장 잠재력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꾸준히 증가**

- 對베트남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여 **'10년 인도차이나 5개국 투자 총액의 51.5% 차지**

* FDI 순유입액 추이(백만 달러, 세계은행)

- ('00)1,298 → ('03)1,460 → ('06)2,400 → ('09)7,600 → ('10)8,173

- UNCTAD에서 발표하는 투자실행지수*(Inward FDI Performance Index) 순위에서 **베트남은 141개국 중 22위를 기록**

* 투자실행지수 = $\frac{\text{베트남 투자유입규모/세계 투자규모}}{\text{베트남 GDP규모/세계 GDP규모}}$

□ **우리의 對베트남 직접투자 규모가 240억 달러('11.12월 기준)를 기록하며 베트남 제 2의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**

- 투자규모가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전체 해외직접투자액 중 **12%를 차지**

< 베트남의 국별 FDI 유입현황 ('11.12.15일, 신고기준) >

순위	국명	투자건수	투자금액(억 달러)
1	싱가포르	990	240.4
2	대한민국	3,112	239.6
3	일본	1,669	236.0
4	대만	2,219	235.2
5	버진아일랜드	500	149.9

자료: 베트남 투자기획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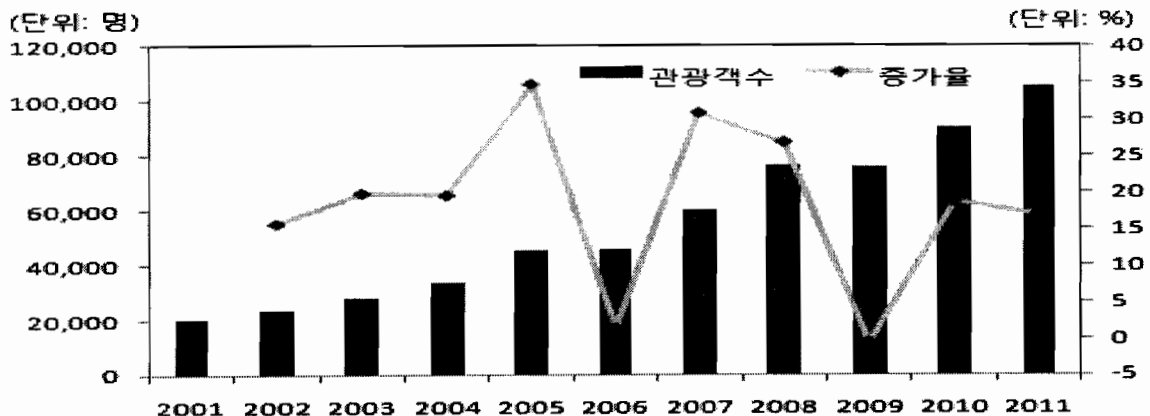
- 對베트남 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우리의 투자는 점차 **다변화/고도화되는 양상**

- 과거 단순 섬유 가공 위주의 제조업 투자에서 나아가 **1차금속, 전자제품 등으로 투자 분야를 확장**

3. 新한류 열풍으로 인한 親韓 분위기 조성

- K-POP,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인기가 크게 상승하며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
 - 국내 유명 가수에 대한 현지 인지도가 높으며 베트남 내 유명 웹사이트나 TV 등에 우리 노래가 지속 업데이트
 - 베트남 TV 전체 프로그램 중 한국 드라마의 방영 비율이 약 10%를 차지하며, 해외 방송프로그램 중 70% 이상이 우리 콘텐츠
- 지난 10년간 방한관광객이 약 5배 이상 급증
 - '01년 2만명 수준에 불과했던 방한관광객이 '11년 10만명 이상까지 빠르게 증가

< 베트남 방한 관광객 수 추이 >



자료: 한국관광공사

- 경제·문화 한류 등의 효과로 인해 베트남 내 한국어 배우기* 열풍이 지속 확산

* 총 10개 대학에서 2,100여명의 학생이 한국어 강의를 수강

(베트남 한국 교민신문, '10.12월)

Ⅲ. 향후 협력 방향

1. 경제협력 기반 구축

□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

- '09년 기 구축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*의 심화를 위하여 정상간 교류 지속 추진**

* '01.8월 한·베트남 '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' 공동선언 이후
'09.10월 VIP 방베시 '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'로 격상

** 12.3월 핵안보정상회의시 베트남 총리 방한 계기 등을 활용

- 정부간 협의채널*을 통해 원전건설·산업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고, 우리 기업의 對베트남 투자 및 교역 지원

* '12.2월 3차 한-베 장관급 공동위원회 예정

□ 한-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행사를 마련하여 우리의 베트남 원전 사업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

- 국내 베트남 주간 개막행사를 '한-베트남 우호의 해' 개막 행사와 연동하여 추진

* 금년 말 베트남 내에서 우리 주관 행사를 진행할 계획

- 정치, 경제, 문화, 학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여 양국간의 우호 증진

2. FTA 등 통상협력 진전

- '11.10월 완료한 공동연구를 바탕으로 한-베트남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국내절차를 진행

한-베트남 공동연구 결과

- ◇ (추진배경) 상대적으로 긴 유예기간 등으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한-ASEAN FTA 활용률이 3% 수준에 불과
- ◇ (경제적 효과) 한-아세아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 체결 시 양국의 GDP와 수출이 모두 증가할 전망

- 공동연구 작업을 통해 FTA 포괄범위를 상품, 서비스 및 투자 외에 투명성, 지적권 및 기타 상호 합의하는 이슈까지 확대
 - 양국간 경제협력 분야에 에너지·광물자원 협력을 포함
 - 양국간의 협상 이전을 좁히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협력 분야를 지속 발굴할 필요
- 원전, 방산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수출시장 확대
- (원전) 원전 수출의 경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단기적으로는 협력기반 구축에 집중
 - 원자력안전규제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종합 및 개별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을 공유
 - (방산) '방산수출 활성화 방안'('11.7월)을 토대로 베트남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·추진

3. 개발협력 지평 확대

- ◇ 개발원조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수원국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
 - KSP, EDCF 등 프로그램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개발원조 효과성을 향상
 - 물적 지원과 아울러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자생적 발전 역량을 증진하는데 주력

□ (EDCF) 금년 對베트남 EDCF 지원 목표를 2,815 달러로 설정

※ '11년 승인 실적 : 6개 사업, 212백만 달러 (기후변화프로그램 포함시)

-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베트남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을 지원

□ (KSP) '09년 한-베트남 정상회담 시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투자환경 개선, 자원개발, 인적자원 개발, 농촌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식공유 확대

- '09년 베트남을 중점지원국으로 선정한 이래 지난 3년간 경제·사회 발전을 위한 제시한 정책대안을 구체적 프로그램으로 발전
- 특히, 2011~2015 사회경제 개발계획(SEDP)의 언급되는 주요 분야* 등을 중심으로 KSP 프로그램을 확대

* 인적자원 개발, 인프라 건설, 행정개혁, 사회보장, 빈곤감소, 기후변화 대응 등

4. 분야별 산업협력 증진

- (광물 협력) 석유·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베트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진출 방안을 모색
 - 페트로베트남(PETROVIETNAM)과 협력하여 베트남 및 제3국에서의 공동 참여 기회 모색
 - 자원협력위를 통해 양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
- (농어업) 현재 추진 중인 '국제농업협력사업'*을 업그레이드 하고 라오스, 인니 등으로 확산
 - * 농업·농촌개발 관련 종사자 국내초청 연수, 전문가 파견 기술 전수, 소규모 시설 설치 및 기자재 지원 등
 - 해외농업기술센터(KOPIA)*를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및 해외농업개발기업 기술 지원
 - *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, 총15개 센터 중 베트남·필리핀·미얀마·캄보디아·태국 등에 설치
- (시스템 수출) 정부간 협력을 확대하여 Government to Government 방식의 전자정부 수출을 확대
 - * 베트남 정부데이터센터(1억불), 베트남 전자조달(300만불) 등
 - 호치민거래소, 하노이거래소, 예탁원 등 전체 증권시장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
- (환경) 환경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국내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
 - 현지 기업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한-베트남 센터의 전문인력을 보강(2인→4인)